티베트 돕는 '우리는 선우'

망명정부에 매년 2천만원씩

스님 학비-난민 생계비 지원

우리는선우(이사장 박광서)는 티베트 스님들의 학비와 난민들에게 연간 2000여 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한다. 지난 7월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를 방문한 우리는선우는 17일 상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티베트 지원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우리는선우는 △스님 학비 △난민 생계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매달 170만원 정도의 기금을 티베트 망명정부에 전달한다. 지원금은, 다람살라에 거주하는 6백여 스님과 10만여 난민들의 교육 및 생활비로 사용된다.

다람살라의 티베트인들은 15~300루피(약 5천~1만원)로 하루를 살고 있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매년 2천여 명의 티베트 난민들이 다람살라에 계속 유입되고 있어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우리는선우의 지원은 티베트 불교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를 지키는 일에 한국의 불교신행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는선우 조정숙 과장은 "지원 계획에는 현지 티베트 스님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티베트 스님에게 숙소와 학비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시켰다"며 "재정지원이 한·티 양국 불교계의 실질적인 교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인도 다람살라를 찾은 우리는선우 회원들이 '티베트 어린이마을'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선우는 모금 캠페인도 전개, 티베트 지원 사업을 한국불교계의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선우는 향후에 망명정부 인근 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도 건설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우리는선우 관계자는 "숙박시설은 인도 내 한국불교의 교두보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건립 후 운영을 망명정부에 위임해 그 수익금을 티베트의 종교과 문화를 지키는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천태종 조사기 배구대회

대전 광수사 청년회우승

올해로 28회를 맞은 천태종 상월원각 대조사기 배구대회가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 스님과 각 사찰 주지스님 및 청년회원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단양 영춘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천태종 소속 각 사찰 35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대전 광수사가 배구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대구 대성사와 동해 만리사가 준우승을 했다. 족구는 울산 정광사, 릴레이는 청주 명장사, 단축마라톤 남자는 청주 명장사 김태현씨가, 여자는 역시 청주 명장사의 김원정씨가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974년 "나라와 불교의 미래는 젊은 청년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호연지기의 기상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야 한다"고 강조한 천태종 중창주 상월 원각 대조사에 의해 청년들의 수련의 장으로 창설된 배구대회는 28년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열려 지역민들도 대거 동참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경숙 기자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노인·여성회관 위탁운영 추진

논산사암련 덕산스님



'난타' 공연 등 문화행사 유치

해마다 경로잔치·효도관광

논산훈련소·교도소 포교도

"내년에는 2만명 수용규모의 논산 공설운동장에서 연등법회를 개최해 지역 포교의 새 전기로 삼겠습니다."

올해 처음 논산시민회관에서 '난타' 공연 등의 문화행사를 열어 2,000여명이 참여한 시민연등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논산시사암연합회 회장 덕산스님(지장암 주지, 법륜종 총무원장)은 "부처님오신날이 시민이 참여하는 연등축제로 승화될 때 포교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덕산스님은 올초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을 시도했다 실패한 일을 교훈삼아 논산시 노인회관과 여성회관 위탁운영권을 받아내기 위해 조직적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3년전부터 시장에서 40여 회원사찰의 스님들이 탁발을 실시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하고 정기적인 경로잔치와 효도관광을 실시하는 한편 연합회 산하에 간병봉사회를 조직, 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도 본격적인 사회복지사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특히 매년 수차례 지역주민과 함께 벌이는 경로잔치와 두 개의 게이트볼장 운영은 자연스런 포교는 물론 사찰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을 갖게 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납골당,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현안과 지자체와 주민들과의 갈등을 중재하는 민원해결사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다.

이 밖에 전국최대의 전법도량인 논산훈련소를 둔 사암련으로서 육군항공학교, 대전교도소 성동구치소 등의 정기법회를 지원하는 포교사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불교가 되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불교의 보살행과 맞닿아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나서야 합니다."

논산=김재경 기자

건봉사 진신치아사리 이운

9월 21일 고성 수성문화제

올해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리는 수성문화제에 건봉사의 부처님 진신치아사리(釋迦 眞身齒牙舍) 거리 친견 경축법회가 봉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성문화제위원회는 오는 9월 21·22일 이틀동안 고성공설운동장 등에서 열리는 제19회 수성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 금강산 건봉사(주지 영도)에 안치된 석가 진신치아사리(8과)를 연꽃 장식의 가마로 이운(移運)하는 사상 최초의 거리 친견 기회를 마련했다.

수성문화제추진위는 특히 석가 진신치아사리의 첫 거리 친견을 수성문화제의 전국 규모화 발전 기회가 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건봉사 부처님 진신치아사리는 신라때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왔으며 임진난때 왜병이 약탈해 간 것을 사명대사가 되찾아와 건봉사에 봉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봉사 관계자는 "지역축제에 불교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033)682-4946

김재경 기자

부산 삼광사 서화전

삼광사(주지 도원)는 20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전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 주홍식 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 등 3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1회 삼광사 서화전시회 개막식을 거행했다.

우리나라 불교예술과 정신문화유산을 창출해 온 서화 감상을 위해 24일 까지 열린 전시회는 운덕스님, 월하스님, 경보스님, 청남 오세봉 선생, 관당 정익제 선생 등 유명 서화가 12명의 작품 67점이 전시돼 불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산=천미희 기자

'직지' 세계유산기념 유등제

청주 9월5·6일…영규대사 추모법회도

청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이두 스님)가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도민화합을 기원하는 연등대법회를 9월 5일 개최한다. 또 청주불교실업인회와 공동으로 9월 6일 청주성탈환 409주년을 맞아 영규대사 추모대재를 봉행한다.

청주사암련은 이번 무심천 연등대법회를 세계 최초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경>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 유등제와 기념축하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청주사암련은 또 청주불교실업인회와 공동으로 9월 6일 청주중앙공원에서 임진왜란 당시 호국 충정의 정신으로 의병을 일으켜 청주성을 탈환하고 금산전투에서 입적한 영규대사를 추모하는 영규대사 추모대재를 봉행한다. 이날 파라미타 충북지부는 사진전을, 광덕사는 경로잔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위빠사나 수련하세요"

천안 '호두마을' 개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빠사나 수행센터인 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락키타스님)이 천안에 대규모 수련원인 '호두마을 위빠사나 수행처'를 마련, 내달 1일 오후3시 개원식과 불상 점안식을 거행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수행자의 보시로 짓게 된 수행처는 충남 천안시 광덕면 부원골의 대지 2,000평에 연건평 170평, 55평 규모의 수행홀 2곳을 갖췄다. 16곳의 개인숙소와 90평 규모의 수행홀이 있다.

이 곳의 위빠사나 수행은 좌선과 행선, 일상에 대한 관찰로 이뤄지는 반면 하루 14~19시간씩 이어지며 철저히 묵언을 지켜야 한다. 또 낮 12시 이후에는 오후불식을 실천토록해 이를 통해 몸과 감각, 마음, 법 등 네 곳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통찰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041)567-9374.



◇호두마을 위빠사나 수행처 전경.

김재경 기자

지장암 납골당 건립

32평 4000기 규모

한 사찰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아닌 협조아래 납골당과 영탑원을 건립해 화제가 되고 있다.

충남 논산시 노성면 화곡리에 소재한 지장암(주지 덕산)은 최근 사하촌 주민들의 전폭지원 지원아래 4,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32평 규모의 납골당 '연화대'와 영탑원을 건립, 내달 중순에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지장암이 사하촌 주민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주민 경로잔치 주최, 경로관광 지원, 동네 행사 지원 등으로 주민들과 친목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한 연화대는 개인형, 가족형, 종중형 영가탑이 들어설 수 있는 영탑원과 함께 운영되며, 연화대 위에는 20평 규모의 극락전도 추가로 조성된다. 선재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지장암은 노인복지관 건립도 추진중이다.

(041)733-5629

논산=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9일간의 내면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